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절 후 제4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통48). 만유의 주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겨울의 한가운데에 봄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 곳곳에 잔설과 얼음이 남아 있지만 믿음으로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차가움과 냉정함에 쉽게 움츠러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더디지만 결단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나라가 오리라는 믿음으로 꽃꽂하게 견디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들려주십시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적 권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주신 삶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보장하는 진리의 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전10:13	인도자
♠ 교 독 문	79. 요15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광권희 집사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22(통357).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다함께
성경봉독	I. 빌2:15	인도자
	II. 고전3:1-9	김금순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신앙의 입춘	김재홍 목사
	II. 성숙을 향한 오름길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80년대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 말은이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합하여 응답하며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나와 ‘다른 것’을 쉽게 ‘틀린 것’으로 생각하던 지난날
을 반성합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하는 일은 달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동일한 존재임을 잊지 않겠
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음을 잊지 않겠습니
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월례회	2월 기도의 밤
찬양 인도 : 장성호 형제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방문성 장로	인도자 박규석 집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이호원 김 극 정경례 고숙이 서정순
	헌금위원	구성실 김근종(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자녀교육에서도 거듭났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지만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다. 크리스찬 부모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첫 번째의 거듭남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의 거듭남이 필요한데 자녀교육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다.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교육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마저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하다. 한 교인이 자녀교육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자신은 교회 구역모임에 가서 고액과외를 소개받았다는 것이다.

구역 모임에 참석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집사가 "그런 식으로 아이 공부시켜서 2호선 타겠어요?"라고 나무라며 고액과외를 소개해 주었다는 얘기이다. 교회 안의 구역모임과 여전도회, 다양한 모임들 안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만연한가?

자녀를 둔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교회 다니는 부모인가, 아니면 크리스찬 부모인가?' '나는 과연 자녀교육에서도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다시 한 번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임을 확신하여야 한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가 진정 잘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원리를 멀리한 채 많은 부모들이 '옆집 아주머니'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주일마저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다. 이것은 불신앙이요, 자녀교육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주위를 둘러보며 초조해 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성경적인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

가정이 기독교가정으로 회복되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일 아침에는 자녀들이 교회학교 예배와 말씀교육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자녀교육의 성공인가? 궁극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 이웃을 섬기고 하나

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기독교교육이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부모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녀교육에서도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주일 아침,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 교회학교 학생 1천19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일 아침 교회학교에 못나오는 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응답한 것이 '주일에 학원가기 때문'이었다. '교회학교가 재미없어서'라는 응답은 세 번째였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학교 학생수가 감소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교육의 팽창이다. 사교육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는 주일성수마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기독교인 부모들조차 자녀들이 주일 아침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것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 속에는 온갖 교육적 진리가 다 들어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자녀가 지혜로워지고 성적도 오를 수 있다. 교육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권위를 인정할 때 가능하게 된다.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된다. 성실, 인내, 겸손, 온유와 같은 덕목들이 형성된다. 당장 점수가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이다.

결국은 성실한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다. 버지니아 공대 참사 사건이 일년여 지났지만 그 어머니는 자식이 버지니아 공대에 들어갔었으니까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된 것'이 아니었다. 명문대학에 입학했으니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 어떤 인성, 어떤 가치관을 지녔느냐가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긴다. '나도 모세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나도 바울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같은 꿈과 비전처럼 좋은 동기유발이 없다. 동기가 유발될 때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학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 박상진 (장신대 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겨울 들판을 거닐며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을 거닐며
매운바람 끝자락도 맞을 만치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

뜸성뜸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논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발 아래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겨울 들판을 거닐며 /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줄 것 없을 거라고 /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허형만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우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이한림 김명희 김춘려 방문성 박해경 방 민 김중수 이순정 조관행
 홍선희 안종일 정현주 장영숙 김인걸 문영혜 장성호 오진훈 노순옥
 곽상준 최경미 방 준 황지현 맹은선 김경연 김지호 이해수

월정헌금:

이성범 이소순 전영규 김경수 장재영 김재영 이은자 서정순 왕수명
 이동천 윤성종 김윤정 김 크 이해동 권미정 김영순 이경남 김종철
 고영애

감사헌금:

허호범 박성실 최윤희 김용진 박효선 박계순 고유비 김종철 고영애
 유지은 전성오 왕성환 강순배 무명6

생일감사헌금:

허호범

녹색꿈 헌금:

김남홍 권미숙 김기석 무명1 (누계: 9,611,000원)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박미영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오후 1시 30분부터 선교회별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2. **남선교회** : 월례회 이후에 각 남선교회 회장님들은 세미나실로 3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 **교역자회의** : 중구용산지방 교역자 회의가 3일(화) 오전 7시에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4.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5. **지방남선교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총회가 5일(목) 저녁 7시 남산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6. **연합속회** : 2월 6일(금) 오전11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예루살렘 속 식사준비 - 나사렛 속
7. **문학의밤** : 중고등부에서 '열정'이라는 주제로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일(토) 저녁 7시입니다. 많은 격려와 참관 부탁드립니다.
8. **신임원환영회** : 다음 주일 오후집회는 신임원환영회로 모입니다.
9. **실천** :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생태습지공원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금주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설거지 봉사: 곽상준 최경미

다음 주 식당 봉사 : 갈렐리 속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